

2005 한·일 우정의 해 개막식 축하

먼저 한·일 우정의 해 개막식을 축하합니다.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한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웃입니다. 그러나 옛날 이웃과 지금 이웃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통신사절 시절에는 서울에서 도쿄까지 다녀오는 데 6~7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. 연락선 시대에는 6~7일이 걸렸습니다. 이제는 항공기로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. 교통 뿐만 아니라 발달한 통신은 한·일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, 경제는 교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좁 사이가 나빠도 불편할 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 지금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, 양국 관계가 불편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만큼 긴밀한 사이가 됐습니다. 설사 좁 유감이 있어도 친구가 되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. 숙명적으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

관계가 되었습니다.

친구가 될 바에는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되지 말고,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친구가 돼 갑시다. 손을 잡으면 불행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새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

양국 관계를 도로로 표현하면, 오래 전부터 경제도로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열려 있습니다. 정치·안보 측면의 협력도로도 활발하게 개통되어 있습니다. 이제 문화의 도로가 넓게 뚫려 나가고 있습니다.

길을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힙시다. 길 위에 있는 장애물은 양국이 협력해서 치워 나갑시다. 한·일 관계를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뚫으려면 있는 장애물을 없다고 하지 말고, 있는 것은 바로 직시하고 치우는 데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.

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슴에 따뜻한 우정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.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우정의 불을 지피고 양국 국민 사이의 우정을 따뜻하게 이어 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이틀 전 도쿄에서 열린 한국 주최 행사가 성공하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고, 참석해서 격려해 주신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.

올해는 양국 수교 4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.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양국의 우정으로 성공시킬 때 보람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올해는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이뤄지는 ‘국민교류의 해’가 되기를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